

평창올림픽 방송통신망 훼손…고의인가 실수인가

고소까지 번진 KT-SKT의 ‘불편한 전쟁’

국제방송센터 스킵점프대 통신관로 절단
KT “올림픽 방송통신망 손상” SKT 고소
SKT “단순 현장 실수…고소 이해 불가”



KT와 SK텔레콤, 이동통신의 두 대기업이 법정 분쟁까지 불사하는 갈등에 휘말렸다. KT가 SK텔레콤을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망으로 쓸 통신설비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

이에 SK텔레콤은 현장의 단순한 실수이고, 설비제공업체에 따라 문제의 피해 설비를 원상 복구하고 있는데 고소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갈등이 촉발된 설비 훼손 논란은 10월31일



통신업체 라이벌 KT와 SK텔레콤 사이에 다툼을 야기한 문제의 평창동계올림픽 방송통신망 설비. 사진제공 | KT

발생했다. KT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국제방송센터, 스킵점프대, 슬라이딩센터 인근 통신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광케이블 6km를 설치하다 적발됐다.

KT는 “세계적 축제이자 국가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며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등을 11월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평창경찰서는 SK텔레콤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런 KT의 강경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 문제가 된 해당 설비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의도치 않게 경쟁사 설비에 피해를 준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하지만 비어있는 관에 케이블을 매설했을 뿐이고, 이는 작업현장에서 종종 생기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타사설비를 훼손했을 때 3개월 내에 원상복구한다는 협정서

가 있다”며 “원상복구를 안한다면 몰라도 이를 이행중인데도 고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SK텔레콤의 반응에 대해 KT는 “단순한 설비가 아닌 올림픽 방송통신망이다”며 “만일 이로 인해 방송에 차질이 생기면 올림픽조직위원회나 방송사 등이 피해를 보고 결국 통신망 운영주체인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료와 전주 등 필수설비 공유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업체간의 감성싸움을 갈등 촉발요인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유통·패션업계 BI 변경 붐

(브랜드 아이덴티티)

CU, 밝은 이미지…시각적 요소 재정비
신원 비키, 올드한 이미지…공간 형성

유통·패션업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변경 붐이 일고 있다. 편의점 브랜드 CU는 최근 BI를 리뉴얼했다. 소비자에게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각 요소들을 재정비했다. ‘Nice to CU’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내세우고, 말풍선에 라운드형으로 마감한 로고를 담아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LF의 온라인쇼핑몰 LF몰은 새 BI를 통해 10~20대 젊은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가 즐겨 찾는 종합라이프스타일 쇼핑몰로 이미지 전환을 노리고 있다. LF 구성원의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기본으로 사각형과 원형을 디자인 모티프로 삼아 제작했다. 새로운 BI로 트렌디한 상품을 언제나 손쉽게 구입할



새 BI가 적용된 CU 매장 외부 전경(왼쪽)과 신규 BI와 함께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신원 비키 모델 요원서. 유통·패션업계에 BI 변경 붐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 | CU·신원

수 있는 친구 같은 쇼핑몰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패션업체 신원 비키(VIKI)도 신규 BI를 발표했다. 기존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인 가격라인을 통해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장훈 신원 패션 총괄 담당 부사장은 “새롭게 론칭한 비키는 기존 자유로운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변화를 담았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아차, 첨단 안전기술 적용한 2018년형 K7 출시

첨단 주행 안전 기술(HDA)…안정성 강화
스크래치 수리 지원 및 하이브리드 보장

기아자동차가 첨단 주행안전 기술과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2018년형 K7’을 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업그레이드는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기능의 적용. 스텔링에 이어 기아차에서 두 번째로 적용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HDA)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트를 설정하고 주행시 자동활성화되는 첨단 안전 기능이다. 앞차와 거리 유지, 차로 유지,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주행 설정 속도 자동 변경 등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BCW, 구 BSD) 기능, 동승석 통풍 시트, 뒷좌석 측면 수동식 선거터들 2.4 기술링 리미티드 트림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존 모델에서 동승석까지 적용했던 시트벨트 리마인더를 뒷좌석까지 확대해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량 배터리 전력

과다 사용 시 경고 문구를 표시해 주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장착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적용했으며, 트림을 3가지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8년형 K7의 가격은 3105만원~3990만원이다.

기아차는 2018년형 K7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 스크래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스타일 개런티’와 하이브리드 전용 ‘HEV 개런티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고 후 3개월 이내



첨단 주행안전 기술과 소비자 선호 사양을 대거 적용해 상품성을 크게 강화한 2018년형 K7.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전·후방 범퍼, 전면 유리, 사이드 미러 손상 시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신한카드, 100년 기업 ‘제2의 창업선포’



신한카드의 4일 서울 을지로 신사옥에서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2의 창업’을 선포했다. 10년의 명동 사옥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을지로 사옥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임영진(사진) 신한카드 사장은 제2의 창업 키워드로 ‘비욘드 X’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로 베이스 관점의 지속성장 전략, 1등 DNA의 확고한 정착, 디지털 퍼스트 기업 전환 가속화 등을 꼽았다. 임 사장은 “임직원의 마음가짐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새롭게 바뀌 200만 고객과 함께 신한카드의 100년을 꿈꾸자”고 했다.

정정욱 기자

‘CFS 그랜드 파이널’ 성료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대회 ‘CFS 2017 그랜드 파이널’이 중국 시안에서 3일 막을 내렸다. 결승에서는 중국 대표 슈퍼 발리언트 게이밍이 베트남의 EVA 팀을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모바일게임 ‘던’을 중목으로 한 ‘CFS 모바일 인비테셔널’에서도 중국 대표 AG가 베트남의 VNAS를 제압

하고 초대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경기 외 즐길 거리도 많았다. 3일 결승전 오프닝 무대에선 ‘드론쇼’가 펼쳐졌고, 경기장 주변엔 슈팅 게임기와 가상현실(VR) 체험장이 설치됐다. 여병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CFS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성공시켰고, 향후 더 나은 대회를 위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베이 “중고차 구입 전문가와 함께 해요”

이베이코리아는 중고차 거래 및 차량관리 전문 브랜드 마이마부와 손잡고 10일까지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를 지마켓과 옥션에서 제공한다.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해 차량점검, 시세확인부터 사고·보험이력 확인 등 행정업무까지 차량 구매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하는 자동차 토탈 케어 서비스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매물에 한해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5만5000원에 전문가 동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지정 장소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부터 외부 점검까지 차량 전반을 관리해주는 차량관리서비스는 33만원에 선보였다.

김명근 기자

경제현장.jpg

“매서운 추위, 지금이라도 겨울준비 하셔야요”



이마트가 본격적인 추위를 맞아 후대가 간편한 담요를 선보였다. 이마트는 멀티 ‘덕다운 블랑켓’(2만5900원)을 이마트 전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침낭 형태로 말아서 파우치에 담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솜보다 더 따뜻한 소재인 덕다운(솜털75%, 깃털25%)을 충전재로 사용해 품질과 기능성을 높인 제품이다. 사진제공 | 이마트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청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한 눈으로 보는 경제

4일

코스피지수	2501.67	↓	+26.26
코스닥지수	782,450	↓	-5.25
日 닛케이 지수	2만2707.16	↑	-111.87
中 상하이 종합	3309.62	↓	-8.0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8	↓	0
환율 (원 · 달러)	1089.0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629.07	↓	+87.22

오늘의 얼굴

손영권 “자율차, 헬스케어 M&A 추진”



을 상반기 9조4000억원에 글로벌 전장기업 하만(Harman)을 사들인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M&A)을 모색한다. 4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손영권(사진)삼성전자 삼성전략혁신센터장은 지난 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창업 페스티벌에서 “하만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 경영진은 대규모 M&A 거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됐고 향후 더 큰 거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구체적인 M&A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등 3가지 분야를 꼽았다. 이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인터넷, 자동차, 네트워킹, 정보 전송, 보안 분야 회사도 찾고 있다”며 “삼성에는 다양한 기술에 관심이 많고, 스타트업과의 협업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 TALK TALK

●“혁신창업 애로 해결하는 게 정부·금융권 의무”(최종구 금융위원장, 4일 서울 강남구 디캡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특히 모험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필요하며, 금융지원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1, 2차 협력기업간 동반성장 활동이 활성화되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 지기를 희망한다”(포스코 권오준 회장,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7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파트너 스테이에서)

데이터 경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3333억원으로 작년 동월(5조7641억)보다 9.9% 증가했다. 다만 추세의 영향으로 전년(6조7천935억)보다는 6.8% 감소했다. 한편 10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 금액은 4조29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액의 63.6%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1월 모바일쇼핑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후 최고치다.



편집 | 신하늬 기자